

추석 차례상도 수입 농·수산물이 '점령'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추석 차례상 '점령' 현상이 올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운영하는 광주·전남 3개 등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수입 농수산물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영도매시장(농협 포함) 수입 농산물 취급현황'과 '수협공관장 수입 농산물 취급현황' 자료를 재정리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협 공관장의 수입 농산물 취급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의 취급현황을 보면, 물량기준으로 2005년 25.7%에서 2006년 31.4%로 늘었으며, 올해

수협·농협 등 공영도매시장 32곳 판매비중 증가 간소라 100%·명태포 99%·참조기 45% 수입산

들어 8월 현재 33.8%로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2005년 30.3%에서 2007년 8월 현재 36.1%로 늘었다.

수입산 비중이 50%가 넘는 품목(물량기준)도 2005년과 2006년 각각 13개에서 올해는 15개로 늘었으며, 심지어 90%가 넘는 품목도 간소라(100%), 명태포(98.7%) 등 7개 품목이나 됐다.

특히 추석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중 임연수어(94.6%), 명태(77.2%), 명태포(98.5%), 홍어(71.6%), 참조기(44.9%) 등에서 수입산의 취급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영도매시장의 수입 농산물 취급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민영시장보다 수입산 취급비율이 높았다.

민영시장의 수입 농산물 취급비율은 1.05%(2006년)에 그친 반면,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2004년 4.07%에서 2005년 4.56%, 2006년 5.14% 등으로 수입 농산물 취급비율이 해마다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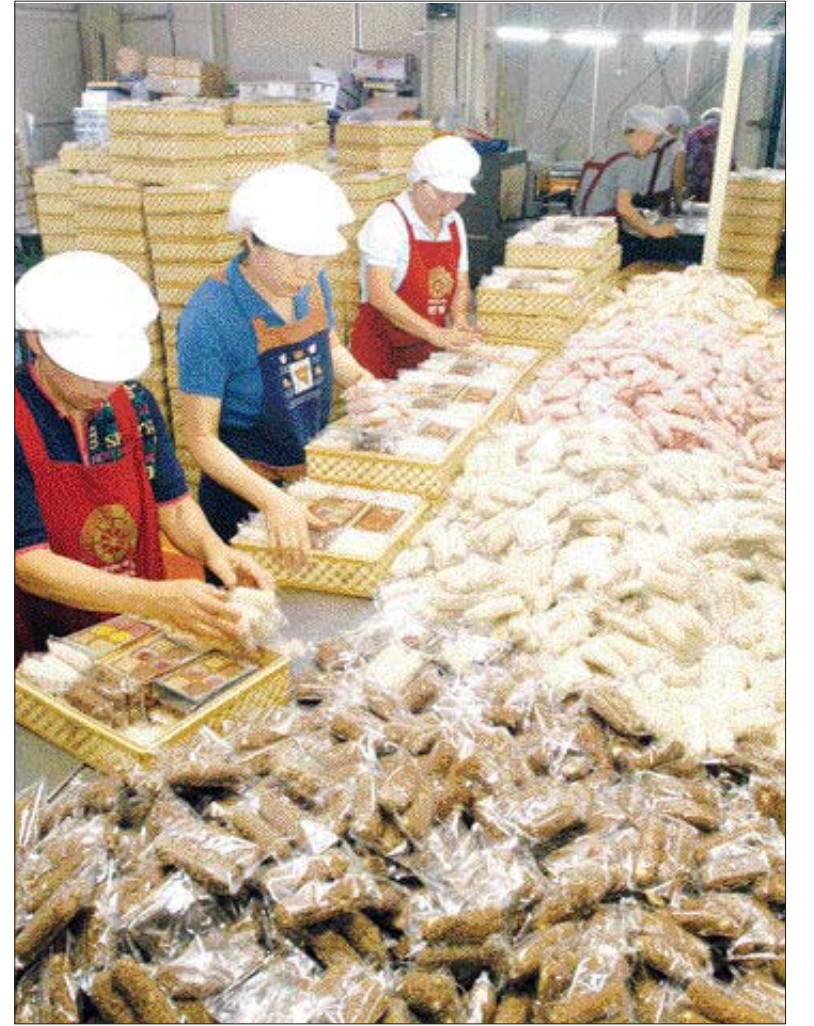
농협 공관장의 수입과일 취급비율 역시 2005년 3.1%에서 2006년 3.5%, 2007년 8월 현재 4.2%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협 중앙회 광주 서부도매시장의 경우 9월 현재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4.4%, 광주 원예협 동조합은 2%대였다.

수입 국가별로는 올해 들어 중국산과 미국산 농산물이 전체 수입 농산물의 58.5%(중국산 31.2%, 미국산 27.3%)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산과 미국산 농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수입 농수산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과 밀수식품도 매년 증가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2005년 4천286건에서 2006년 4천755건에 이어 2007년 들어 7월 현재까지 이미 3천655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일부 대형 할인점과 소규모 시장에서 값싸고 질 낮은 수입 농수산물을 팔고 있는 현실에서, 수협과 농협 등 공영시장에서조차 수입산 취급비율을 늘리고 있어 추석 차례상마저 수입산으로 뒤덮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추석 선물 신도들이 한과세트도 수입 농수산물의 추석 차례상 '점령'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담양(주)창평한과 직원들이 선물용 한과세트를 포장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롯데백 광주점 오늘 개점 9돌

친절·패션 1번지로 유통문화 한단계 Up

롯데백화점 광주점(사진)이 18일로 개점 9주년을 맞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그동안 패션 1번지로 상품 판매에 국한되기 보다는 감성과 이미지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지역 유통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최초로 복합 멀티영화관인 롯데시네마를 개관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예술 공연 및 문화센터 강좌 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지역 밀착 경영으로 지역민과 유대감을 강화시켜 온 것도 눈에 띈다.

2003년 발족한 '빛고을 나눔봉사단'은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독거노인 돌기, 영아·장애인 돌기, 교통도우미 활동, 무등산 자연정화, 광주천 살리기 등을 실천했다.

롯데백화점은 앞으로 모든 계층을 수용하기 보다는 패션·전문화·고급화를 지향하고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매장 구성 등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패션문화와 상품신뢰, 친절서비스 등 3가지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구수희 점장은 "지역친화 경영을 근간으로 '친절 1번지, 패션 1번지'로서 타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며 "매장의 모든 환경을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세로 광주의 명소 백화점으로서 신유통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생보자 수급금 압류 못한다

정부 전용통장제 도입... 기초보장법 개정안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가 마련된다.

17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되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14만6천명의 수급자가 압류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경근 기획처 소득분배개선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 명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해 실질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필뉴스

정몽구회장 '8,400억 기금' 운용 사회공헌위원회 7명 선정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사회공헌 이행 약속이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진다.

정몽구 회장은 17일 사회공헌기금을 운용할 '사회공헌위원회(가칭)'의 위원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현대·기아차를 통해 밝혔다.

사회공헌위원회는 경제계 이회범 무역협회장, 학계 이운대 한국 국제경영학회 고문, 문화계 신수정 전 서울대 대학장, 법조계 손지열 전 대법

원 대법관, 언론 및 정·관계 최준명 한국신문협회 이사, 종교·시민사회 분야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과 유홍준 현대·기아차그룹 사회봉사단장 등이었다.

이들 위원은 사회공헌관련 제반업무 총괄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결정해 오는 12월 장·단기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정몽구 회장이 출연하게 되는 사회공헌 기금을 국가

와 사회에 조건없이 기부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세부계획 수립 등에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정몽구 회장은 지난 5월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통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연시설과 지역별 복합문화센터 설립, 환경보전 사업 등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대·기아차가 세계 6위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된 국민들의 성원과 은혜에 보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업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큰폭 감소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8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 금액기준)은 0.24%로 전월(0.55%)에 비해 0.31%포인트 하락했다.

부도 금액은 지난 4월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다 8월 중 78억원을 기록, 1~7월 중 평균 부도금액(136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0.41%포인트,

전남이 0.1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업종별 부도금액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77억4천만원, 35억5천만원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4억9천만원 가량 소폭 증가했다.

신규 부도업체수(한화거래정지 업체수)는 8개로 지난 7월보다 3개 줄었다.

신설 법인수는 248개로 전월(257개)에 비해 9개 감소했으나, 부도법인에 대한 신설법인의 비율은 49.6배로 전월(36.7배)보다 상승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소형점포 카드 수수료 최대 1.5%P 인하"

정부·대통합신당 합의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를 1~1.5%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결집을 이뤘다.

정부와 신당은 오전 국회에서 박영석 의원, 오영식 의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윤용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측에 간이과세(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78만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평균 3%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1~1.5% 포인트 인하하도록 요청했고, 정부측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당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주 내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께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필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 과 정: 주간반(10:00~13:50) / 야간반(19:00~22:30)
-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내 용: 최종 문제풀이(진전도별 진행)
- 교수진: 한우호·박한수 교수(저자직강)
- 기 타: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책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입)모집중 (개강 9월 8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매월초)

- 과 정: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기 타: 훈련수료 후 개인별 합금(노동부)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면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세무공무원 1800여명 올해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공채 예정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 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검출직	물리화
-----	-----	-----	-----	-----	-----	-----	-----	-----	-----	-----	-----	-----	-----	-----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매월 1일과 15일 주·야 (휴일)반 모집 (특차합참후수출)**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9월대개강 (1차개강 9월 1일 / 2차개강 9월 3일)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대, 사립대 편입반 / **약대, 한의대 편입반**

MEET/DEET 전문강좌 /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면입·PMS학원 (광주동부강습서면) ☎ 227-9088

다림 카페검색 에서 **마늘주사 후루민** 을 쳐보세요.

http://cafe.daum.net/furumin

※ 마늘주사 후루민은 일본에서 20년동안 애용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들과 일상생활이 바쁘고 피곤한 연예인, 직장인, 수험생들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 제조원: Kyorin Rimedio 주식회사(日本)

■ 판매원: (주)호원약품

Tel: (062)383-5883

마늘주사 후루민에 투자하실 병·의원 원장님 및 일반 투자자를 모집합니다.